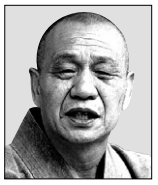


일주문



마사이족생명살림단 파견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마사이족 산모생명을 구하기 위한 12명의 생명살림단을 케냐로 파견했다.



제13회 고신문학대상 수상 속초 신홍사 조실 오현 스님은 시조시집 '적멸을 위하여'로 제13회 고신문학대상 시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투 군중활동 전시회 자료 수집 군중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9월 6일까지 정전 60주년 기념 '전투 군중활동' 자료 전시회 자료를 접수한다. (02) 797-7266



법장 스님 8주기 차례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은 9월 12일 오전 10시 수덕사 대웅전에서 인곡당 법장 스님 8주기 차례제를 개최한다. (041)330-7700



자비나눔 쌀 108포 전달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8월 21일 백중을 맞아 불우이웃을 위해 쌀 20kg들이 '자비나눔 쌀' 108포를 부산 사하구정당에 전달했다.



별빛 마라톤 조직위원장 위촉 동화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해문 스님은 9월 14일 영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인 제1회 영천 별빛전국육트라 마라톤의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중앙신도회 신도원교육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8월 23-25일 2박 3일간 인제 만해마을에서 중앙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교육을 실시했다.

박태원 교수, 제1회 대정논문상 수상 '돈점논쟁의 쟁점...'으로, 시상식 9월 6일



대정장학재단(이사장 김지영)이 제정 한 제1회 올해의 논문상에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의 '돈점 논쟁의 쟁점과 과제-해오 문제를 중심으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불교학연구> 32호에 실린 박 교수의 논문은 2012년 발표한 '돈점 논쟁의 독법 구성'(철학논총 제169집)과 '돈오의 두 유형과 반조 그리고 돈점 논쟁'(철학연구 제46집)의 연장선상이다. 올해의 논문상 시상식은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대정장학재단은 최근 김지영 보살의 원력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제1회 올해의논문상 수상금은 1000만원이다. 노덕현 기자

“팔공총림 개원, 한국불교 발전 계기될 것”

팔공총림 동화사 초대방장 진제 스님 추대법회

지난해 11월 총림으로 승격된 팔공산 동화사가 초대방장 추대하는 승화법회를 봉행하고 팔공총림 개원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19일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조계종 총정 진제 스님을 초대방장으로 추대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대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원로외장 밀운 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각계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사와 축사, 헌사, 법어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총림 개

원을 계기로 산중이 원융화합하는 가운데 불교발전 진흥과 세계평화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 같다”면서 팔공총림 개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동화사가 영남불교 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위를 얻게 됐다”면서 “모든 수행자는 지도하는 방장은 선에 안목과 정견, 정안을 갖추셨기에 조계종의 법통을 상징하는 종정에게서 팔공총림 방장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한국불교 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팔공총림을 종합 수행도량으로 손색이 없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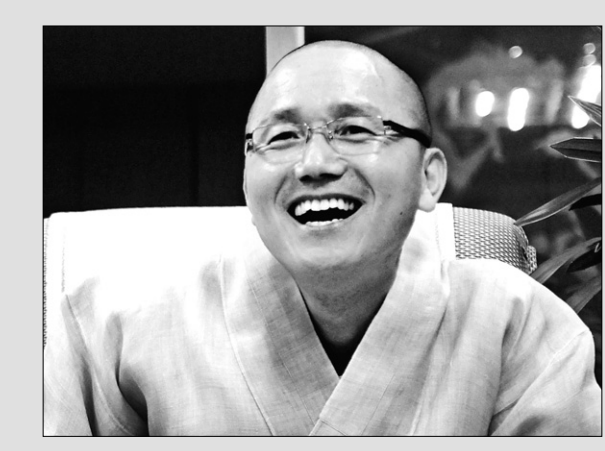
행기관과 처소를 갖추고 있다”면서 “더욱 내실을 기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 포교, 복지 등 제반사항을 가일층 챙겨 나아갈것다”고 하며 “총림대중들은 진제 법원 대종사의 가르침과 뜻을 잘 받들어 한국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하도록 전력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헌사를 전달했고, 세계불교연합회 인도대표 하마토펙 스님이 헌사, 동화사유나 지한 스님이 불자를, 주지 성문 스님은 법장을 각각 봉정했다. 추대법회에 앞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다양한 깃발과 장엄물을 앞세우고 방장스님을 법회 장소로 모시는 “중사 이운



진제 스님이 8월 19일 추대법회에서 주장자를 들며 법문하고 있다.

식'을 펼쳤다. 한편, 팔공총림 초대방장으로 취임한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53년 출가해 해인사에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해인사에서 해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마조도일 선사의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화두를 치열한 정진을 통해 깨달았으며, 향곡 스님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이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무차선대법회와 국제무차선법회 등을 개최하며 한국불교의 산골 진작에 큰 역할을 했다. 2011년 세계적 신학자 폴너더 교수와의 대화로 해외로까지 이름을 알리며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기여했다. 현재 조계종 13대 종정을 역임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손문철 대구지시장



“다문화 가정, 객석 보다는 무대에 직접 세우고 싶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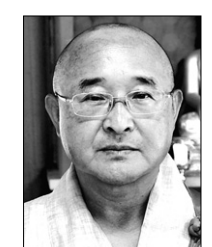
'제1회 다문화가정 음악회' 여는 대행사 주지 월도 스님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어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무시하거나 경계하는 게 아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사교를 전환할 때입니다.” 9월 1일 오후 7시 천태종 분당 대광사 특설무대에서 제 1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가을빛 예술제”를 개최하는 주지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사진)은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국민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야 된다고 강조한다. 대광사의 이번 음악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다문화가정을 초청하는 음악회는 많았지만,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펼치는 행사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월도 스님은 “대광사가 위치한 성남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 나라의 춤과 노래를 한국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음악회를 객석에서 정중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래서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 1부는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공연으로 꾸렸다. 1차 오디션을 통해 총 10개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 1차 오디션 통해 10개팀 경연 선문화체험관 1년 후 완공 다양한 다문화프로 마련할 터 을 하게 된다. 이어 2부에서는 가수 송창식, 김태근, 정태춘, 박은옥 등과 클래식 앙상블 칸투스가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이웃종교인 개신교에는 6백여개가 넘지만 불교계에는 다문화사실이 30여개도 되지 않습니다. 사회의 주요한 해결 현안인 다문화 문제에 우리 불교계가 관심이 부족하다고 봐

금산사 주지후보에 성우 스님 추대

김재 금산사 주지 후보에 은적사 주지 성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금산사(주지 원행)는 8월 23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제15대 금산사 주지후보에 단독후보한 성우 스님을 추대했다. 성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상부상조하는 명실상부한 화합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인 총무원장을 맡아 금산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우 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1981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부터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부대중이 금산사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주지후보로 추대된 성우 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1981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부터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평창동 정토사 '원폭 희생자 유족회' 발족

평창동 정토사(주지 응천)는 원폭 희생 68주년을 맞아 8월 21일 조선헌실 황순 이초남 씨를 회장으로 하는 '원폭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했다. 이초남 회장의 부친은 고종황제의 손자인 이우 공으로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 별세했다. 유족들은 매년 정토사에서 위령제를 올려왔다. '원폭 희생자 유족회'에는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 고종황제 증손녀리 정문자 씨, 고종황제 증손녀 이해원 씨, 이상선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 김용길 전대한적십자사 혈액위원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원폭 희생자 유족회는 정토사 내에 유족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향후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로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이초남 회장은 “유족회 발족은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업의 시작”이라며 “일본 희생자도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응천 스님은 “내년부터 합동위령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원폭 피해 관련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02)379-3169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대학 2013학년도 하반기 등록생 모집

초기불교의 학문을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한 전법사와 수행자의 진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개강한 초기불교전문교육기관인 대한불교대학은 2013학년도에 개강하여 경남진주학습관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경남과 부산지역의 출석과정생 40명, 호주, 베트남, 중국 등 해외교민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등 경향각처의 사이버과정생 40명, 합계 80명으로 출석강의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대학의 학생회 구성은 일반 재가자 70명, 수행자 10명으로 구성되어 년 간 42주 84강좌로 2년 4학기의 과정을 1년 4학기제(전반기 1·2학기, 후반기 3·4학기)로 학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및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출석과정 - 50명 사이버과정 - 100명 (합계 150명)
◆ 모집기간 : 2013년 8월 15일 ~ 9월 14일까지 (1개월)
◆ 수강기간 : 2013년 9월 7일 ~ 2014년 7월 24일(년 42주 84강)
◆ 졸업일자 : 2014년 8월 9일(예정)
◆ 교육장소 : 경남 진주학습관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번지 (사)감로심장회관 3층 진주거사리회관
◆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3시 30분~18시까지 (4시간30분)
◆ 교과과목 : 초기불교기본교설, 초기불교교단사, 인도철학사, 초기불교사회사상사, 경장, 율장, 논장, 불교사, 상좌불교의례, 위빿사나 명상, 응용불교
◆ 교수진 : 마성스님, 나나로까스님, 이철현, 임승택, 김재성, 김재영교수

- ※ 2013학년도
과목명 담당교수
經藏(Sutta-pitaka) 나나로까스님, 마하보디선원주지
律藏(Vinaya-pitaka) 이수창(마성)교수
論藏(Abhidhamma-p.) 김재성 교수
佛敎史(History of Buddhism) 이철현 교수
上座佛敎儀禮(Rites of Theravaada) 이수창(마성)교수
◆ 2013학년도 등록금 : 년 48만원 (년납 44만원, 2회납 24만원) (2013학년도에 한정함)
◆ 등록원서 : 대한불교대학 홈페이지에 확인 바랍니다.
◆ 등록원서 접수처 : 팩 스 : 055)854-3067 이메일 : asrhkdqntk@daum.net
◆ 등록금 납입계좌 : (농협) 351-0113-9532-13 (대한불교대학 광불사)
◆ 문의 : 대학본부 055)854-8424 / 팩스 055)854-3067 휴대폰 010-6796-0106 (학장)
◆ 주소 : 대 학 본 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산113-4번지 경남진주학습관 :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
◆ 참조 :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 홈페이지 주소 : www.dbckorea.kr